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의 성별 차이

Differences between Male and Female in Mov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ohousing Residents in Scandinavia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소비자 주거학 전공

교수 최정신*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조재순**

Division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 : Choi, Jung-Shin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rofessor : Cho, Jae-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the moving motiv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ohousing communities between male and female residents in Scandinavia, especially in Sweden and Denmark. Senior cohousing is an attractive housing alternative for the aged 55 and over who looks for sharing one's life with neighbors. The 655 survey questionnaires out of 960 had replied from 14 Seniorbofællesskaber in Denmark and 11 seniorhus within SABO sector and 8 housing cooperatives initiated by the Seniorsgården Housing Company in Sweden during April to May, 2002.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program, using frequencies, percentiles, cross-tabulations,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enior cohousing residents were generally healthy and age of 70's years old and nearly half lived with a spouse. The male residents lived with a spouse about 2 times more than did the female. The residents had very strong motivation to move into the community and very high life satisfaction. Most aspects of moving motivation were not differed by the sex of the residents. However, male residents were more likely than female to be motivated to move in by becoming a pensioner, while female residents were more likely than male to be motivated by being a widow, looking for safety, or avoiding loneliness. These different motivation to move in by sex become more clear when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health status, living with or without a spouse, or country were controlled. Female residents were more likely than male to live 'dream life' in the senior cohousing community. The stronger the moving motivation, the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in the community.

▲ 주요어(Key Words) :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생활만족도(life satisfaction), 이주동기(moving motivation), 스웨덴(Sweden), 덴마크(Denmark), 남성주민과 여성주민(male and female residents)

* 주 저 자 : 최정신 (E-mail : jjschoi@catholic.ac.kr)

** 교신저자 : 조재순 (E-mail : jscho@knue.ac.kr)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이란 건강한 노후세대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상호간의 공동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치적으로 생활하는 노인주택의 일종이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해 나가고, 직장으로부터는 은퇴하였으나 아직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층의 노후세대, 즉 빈 등우리 세대(empty-nest generation)에게 권장할만한 주거대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주거학연구회, 2000).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동아시아권 국가들에 비하여 일찍부터 핵가족 체제의 붕괴, 기혼 여성의 취업률 상승, 고령인구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기혼 취업여성에게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의 경감을, 노인이나 홀로 사는 독신 가구에게는 고독감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1940년대부터 여성주의자들(feminists)과 모더니스트들(modernists)에 의하여 개발된 것이 코하우징이다. 이 중에서 노부부 또는 홀로 사는 노인만을 위해서 코하우징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노인용 코하우징(senior cohousing)이고, 이러한 주거단지는 1970년 대 이후 덴마크를 선두로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에서 일반화되었다.

현재 스칸디나비아의 일반주택 재고량은 스웨덴에 400만 채, 덴마크에 200만 채 정도이고 노인용 특수주택(그룹홈, 너싱홈, 노인홈, 서비스주택 등)이 스웨덴과 덴마크에 각각 3만 채 정도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 10% 정도는 이러한 특수주택에 살고 있고 대다수인 90%의 노인은 일반주택에 살고 있다. 노인용 코하우징은 주택의 종류로 구분하면 노인용 특수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속하며(최정신, 2003b), 스웨덴에 1만 채, 덴마크에 3천 채가 있어서 주택 중 전체 비율로 본다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점점 주민들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주택의 좋은 본보기로 간주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노인주거 대안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주목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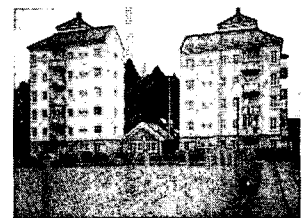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 배경에는 유사한 점도 많으나,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차이점도 있다. 그 중요한 차이 중의 하나는 단지설립주체에 대한 것이다. 대부분의 덴마크 노인용 코하우징이 뜻을 함께 하는 미래주민들이 모여서 주도적으로 설립과정에 참여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데 비하여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방정

부에서 서류자료를 기반으로 먼저 코하우징을 설립한 후 나중에 익명의 입주자들이 이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Vestbro, 2000; Choi & Paulsson, 2003). 덴마크에서 처음 개발된 노인용 코하우징은 스웨덴에서는 비영리 공영주택 개발회사인 SABO²⁾가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었고, 최근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덴마크와 스웨덴에서 발표되고 있다(Ambrose, 1993; Choi & Paulsson, 2003; Choi, 2004; Paulsson & Choi, 2004).

본 연구에서 논의될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는 덴마크의 경우에는 14개 조사대상 단지 모두 미래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설립모임을 가지고 나중에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설립된 “주민 주도형” 설립단지이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방정부 산하 공영임대주택 회사조합인 SABO (11개 단지)와 스웨덴 유수의 민영주택회사인 JM회사 산하의 시니어고든(Seniorgården)에서 설립한 단지들 (8개 단지)로서 “지방정부 주도형”과 “민영회사 주도형” 설립 단지들이다. 즉 덴마크의 경우에는 설립주체가 미래주민이므로 “주민 주도형” 설립단지인 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SABO는 “지방정부 주도형”, 시니어고든은 “민영주택회사 주도형” 설립 단지이다. 소유권에 있어서는 덴마크는 임대, 개인소유, 조합소유 등 다양하고, 스웨덴의 경우에는 SABO는 임대, 시니어고든은 개인소유이다.



<그림 1> 스웨덴 시니어고든에서 설립한 솔로젠 노인용 코하우징 전경



<그림 2> 스웨덴 SABO에서 설립한 그림스타 노인용 코하우징의 전경



<그림 3> 덴마크의 크레아티브 시니어보 노인용 코하우징의 공동생활시설 내부



<그림 4> 스웨덴 그림스타 노인용 코하우징 공동생활시설 앞의 주민들

1) 스웨덴의 노인주택 전문가인 이언 폴손(Jan Paulsson) 교수의 자문에 의함.

2) SABO는 Sveriges Allmännyttiga Bostadsföretag의 약자로 전국적으로 공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택회사조합이다. 이 중에서 노인용 임대주택도 사업의 일부를 차지하며 특히 최근에는 노인용 코하우징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칸디나비아의 대표적 국가인 스웨덴과 덴마크 두 나라의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를 조사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민이 모두 55세 이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소유권형태와 설립주체 배경이 다양한 단지들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주민들이 어떤 동기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며, 또한 공동체 내에서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코하우징 개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아직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발표된 노인용 코하우징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한 POE 성격의 논문은 드물었고, 소수 단지를 사례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 이다(SBI, 1987; Ambrose, 1993; Hansen et al., 2000). 더욱이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은 평균 수명과 유배우자율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과 여러 생애경험이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 등을 남녀 간 성별에 초점을 맞춰 차이가 있는지를 밝힌 연구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미 노인용 코하우징 운영에 수십년 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을 대상으로 대단위 사회조사를 실시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 이것이 과연 남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에 우리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간다고 회자되고 있는 노인 특히, 남성노인의 삶이 여성노인의 삶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 나아가 성별 차이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주거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실마리가 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논의할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내용

- (1)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는 무엇이며, 이는 주민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는 어떠한가, 이는 주민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중, 덴마크와 스웨덴 전국에 걸쳐 노인용 코하우징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법을 사용하였다. 기초과정으로 노인용 코하우징을 공급하는 주택회사와 노인용 코하우징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하였고, 주택회사³⁾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각 코하우징 주거단지의 설립이념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미리 40여개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의 50명 이상의 주민대표들과 이메일, 전화, 편지를 통하여 접촉한 후, 그 중 8개 주거단지에서 현장견학을, 33개 주거단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허락받았다. 설문지는 덴마크어와 스웨덴어로 작성하였고, 설문지 배부는 덴마크에서는 주민대표가, 스웨덴에서는 주택회사가 담당하였다. 설문지 회수는 응답자들이 설문내용을 기록한 후, 미리 배부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연구자에서 재우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전체 배부된 960부의 설문지 중 최종 655부(68.2%)가 회수되어 이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분석방법은 SPSS 통계 프로그램의 빈도, 백분율, 교차분석, 카이검증, 상관관계, Scheffe 분석 등이었다. 조사대상 노인용 코하우징과 설문 응답율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노인용 코하우징과 설문 응답율
N(%)

코하우징 주거단지	가구 수	응답자 수	응답자수/가구수
덴마크 14개 ⁴⁾	230(24.0)	187(28.5)	(81.3)
SABO 11개 ⁵⁾	488(50.8)	282(43.1)	(57.8)
시니어고든 8개 ⁶⁾	242(25.2)	186(28.4)	(76.9)
합계	960(100)	655(100)	(68.2)

3) DAB(Danmark Almennyttigt Boligselskab): The Central Organization of Non-Profit Housing Companies in Denmark.

SABO (Sveriges Allmännyttiga Bostadsföretag): The Central Organization of Municipality Owned Non-Profit Housing Companies in Sweden.

Siniorgården is a nationwide private housing company in Sweden.

4) Ammershøj, Det Kreative Seniorbo, Fredensbo, Fællesbyg af, GeorgsLysthys, Gimle, Hammersparken, Kirsebælunden, Korvetten, Mariendalsvej 14-18, Midgårdgruppen, Mollebjerg, Rynkebakken, Sækkedyb.

5) Bildhuggaren, Herrhagen, Katrinelund, Köpmangatan, Kv. Limhällen, Nacksta, Nydala, Nåsgården, Kv. Russinet, Kv. Sängen, Tillbacksvägen.

6) Österlen Seniorbo, Solrosen, Ringblomman, Eriksberg,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단지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는 196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설립되었으며 대부분 1990년대에 설립되었다. 단지 내 개인주택 수는 8~90채로 덴마크의 경우에 8~30채로 스웨덴의 17~90채보다 더 적었다(최정신, 2003a). 주택 소유형태는 자가, 조합, 공영임대 등 다양하였다. 이와 같이 소유형태가 다양한 것은 전체적으로 공영임대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주택에 있어서는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스칸디나비아의 사회복지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의 주민특성을 덴마크, SABO, 시니어고든(Seniorgården)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성별은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약 1/3이 남성이고 2/3가 여성이었다. 연령은 약 45% 내외가 70~79세로 70대가 주류를 이루었고, 32%가 70세 미만, 20%가 80대였다. 매우 드물지만 스웨덴의 경우에는 90세 이상의 주민도 있었다(1.8~3.5%). 그러므로 80% 정도가 80세 미만으로 초 고령층은 드문 편이었다. 거주형태는 독신노인이 절반을 약간 상회하지만 노인층의 일반적인 거주형태로 본다면 비교적 부부노인이 많은 편이었다. 거주기간은 전체적으로 7년 이상, 3~7년, 3년 미만 거주자가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각각 30% 정도로 고른 분포를 보였고 60% 이상의 응답자가 최소 3년 이상의 코하우징 거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연구를 위한 설문에 응답하기에 적합한 대상이라 볼 수 있겠다. 단지별로는 덴마크의 경우가 7년 이상 거주자가 47%로 많은 데 비하여, 스웨덴은 29.4%(SABO)와 15.1%(시니어고든)로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그 이유는 노인용 코하우징이 덴마크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특히 스웨덴의 시니어고든은 최근에 발달된 형태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교육수준은 가장 많은 49.2%가 초등학교(6년)를 졸업하였고 다음이 중·고등학교(29.2%)졸업이며 대학졸업 이상이 21.2%를 차지하여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았다. 3단지 중에서는 특히 SABO 주민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았는데 이것은 덴마크는 임대와 조합, 개인소유가 혼합되어 있고, 시니어고든은 개인소유인데 비하여 SABO는 임대주택만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덴마크와 스웨덴 두 나라 간 교육수준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학력은 은퇴전 직업과도 관련이 있다.

Höjdpunkten, Kaplanen, Solhöjden, Tunadalen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내용	덴마크	스웨덴		합 계	
		SABO	시니어고든		
성별	남	63(33.7)	90(31.9)	71(38.2)	224(34.2)
	여	124(66.3)	192(68.1)	115(61.8)	431(65.8)
	합 계	187(100)	282(100)	186(100)	655(100)
연령(세)	59이하	11(5.8)	28(10.0)	11(5.9)	50(7.6)
	60~69	71(38.0)	49(17.4)	39(20.9)	159(24.3)
	70~79	82(43.9)	139(49.3)	77(41.4)	198(45.5)
	80~89	23(12.3)	56(19.8)	57(30.7)	136(20.8)
	90이상	-	10(3.5)	4(1.8)	12(1.8)
	합 계	187(100)	282(100)	186(100)	655(100)
거주형태	독신	187(42.2)	173(61.3)	88(47.3)	340(51.9)
	부부	108(57.8)	109(38.7)	98(52.7)	315(48.1)
	합 계	187(100)	282(100)	186(100)	655(100)
거주기간	3년 미만	39(20.9)	126(44.7)	72(38.7)	237(36.2)
	3~7년	60(32.1)	73(25.9)	86(46.2)	219(33.4)
	7년 이상	88(47.1)	83(29.4)	28(15.1)	199(30.4)
	합 계	187(100.0)	282(100.0)	186(100.0)	655(100.0)
교육수준 ⁷⁾	초등 졸	85(45.5)	170(60.2)	68(36.6)	322(49.2)
	중등 졸	44(23.5)	51(18.1)	46(24.7)	141(21.5)
	고등 졸	6(3.2)	23(8.2)	23(12.4)	52(7.9)
	대졸 이상	52(27.8)	38(13.5)	49(26.3)	139(21.2)
	합 계	187(100)	282(100)	186(100)	655(100)
은퇴전 직업 ⁸⁾	주부	18(9.6)	40(14.2)	13(7.0)	71(10.8)
	단순노무직	16(8.6)	68(24.1)	25(13.4)	109(16.6)
	숙련노무직	78(41.7)	37(13.1)	15(8.1)	130(19.8)
	하위공무원, 사무직	12(6.4)	31(11.0)	44(23.7)	87(13.3)
	고위공무원, 사무직	18(9.6)	46(16.3)	42(22.6)	106(16.2)
	학계	11(5.9)	20(7.1)	25(13.4)	56(8.5)
	자영업주	20(10.7)	21(7.4)	12(6.5)	53(8.1)
	기타	14(7.5)	19(6.7)	10(5.4)	43(6.6)
	합 계	178(100)	282(100)	186(100)	655(100)
	건강상태	나쁘다	2(1.1)	13(4.6)	4(2.2)
좋지 않다		30(16.0)	103(36.5)	43(23.1)	176(26.9)
좋다		155(82.9)	166(58.9)	139(74.7)	460(70.2)
합계		187(100.0)	282(100.0)	186(100.0)	655(100.0)
개인주택규모	1~2실+부엌	96(53.1)	139(49.3)	50(26.9)	285(43.5)
	3실+부엌	73(39.0)	113(38.0)	111(59.7)	297(45.3)
	4~5실+부엌	18(9.6)	30(10.6)	25(13.4)	73(11.2)
	합 계	187(100.0)	282(100.0)	186(100.0)	655(100.0)

7) 1950년 교육법 개정으로 현재 스칸디나비아의 교육제도는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3년으로 총 9년이다. 그 후 고등학교 2~3년, 특수한 분야를 제외한 일반 대학교는 4년이다(변광수, 2005). 그러나 현재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이 75세 전후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이 학령기였을 당시에는 초등학교(6년)까지가 의무교육이었을 것이다.

8) 은퇴 전 직업의 분류 항목은 스칸디나비아 현지 분류방법에 따랐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류방식과 다르다.

은퇴 전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은 다양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숙련노무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고(19.8%) 다음이 단순노무직(16.6%)이었다. 그러나 집단별로 보면 SABO 주민의 경우에는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반면(24.1%), 덴마크의 경우에는 숙련노무직이 41.7%로 가장 많아서 큰 차이를 보였다. 단순노무직이 가장 많은 SABO 주민의 특성은 한슨 등(Hanson et al., 2000)의 연구에서 코하우징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건강상태는 대부분의 주민인 70%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사람은 3% 미만으로 극소수였다. 전체 응답자 중 20명 정도가 휠체어를, 40명 정도가 롤레이터(rollator)를 사용하였는데 이들도 역시 모두 SABO의 주민이었다(표 생략). 이것은 90세 이상 주민이 SABO에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주택의 규모는 전체적으로는 1~2실+부엌, 3실+부엌이 40% 이상으로 주류를 이루고 4~5실+부엌의 대규모 주택은 10% 내외로 적었다. 그러나 이를 단지별로 보면 덴마크의 경우에는 특히 1~2실+부엌의 규모가 주류를 이루고(53.1%), 시니어 고든의 경우에는 3실+부엌의 규모가 주류를 이루어(59.7%) 전체적으로는 시니어 고든의 주택규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덴마크의 노인주택규모가 일반적으로 스웨덴의 경우보다 작다는 점, 또한 SABO가 모두 임대주택인 반면 시니어 고든은 모두 개인소유 주택이라는 특성과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특성에서 두 나라 간에 특기할만한 차이는 연령에서 나타났다. 덴마크의 경우에 70세미만(44%)과 70대(44%)가 전체 응답자의 88%를 차지한 반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70세미만이 27%, 70대가 46%로 70대까지의 주민이 73%를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80대 이상의 응답자(27%)가 덴마크의 경우(12%)보다 2배 이상 더 많았다. 그리고 응답자의 평균 연령을 보면, 덴마크의 경우가 74.5세(남성)와 79.2세(여성)로 스웨덴의 77.7세, 82.1세보다 3세가량 더 젊었는데(표 생략) 이것은 아마도 덴마크인의 평균수명이 스웨덴인보다 짧은 것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덴마크인들이 스웨덴인들보다 3년 일찍 노인용 코하우징에 입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덴마크인들이 스웨덴인보다 더 일찍 노인이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거나 또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동기가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최정신, 2003b; Paulsson & Choi, 2004). 즉 덴마크인들은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보나 나온 삶과 인생을 즐기기 위하여 일찍 입주하는 데 비하여 스웨덴 인들은 보다 늦게 안전성을 위하여 코하우징으로 입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스웨덴과 덴마크의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은

대부분 건강하고, 70대 전후이며, 부부노인보다는 독신노인이 약간 더 많았고, 노인용 코하우징 거주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은퇴 전 직업은 다양하였다.

2.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주민들이 어떤 이유에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7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매우 그렇다”(4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4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7개의 문항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Ambrose, 1993; Jensen, 1994; Pedersen, 1999, 2000) 중에 나타난 주요 이유들을 연구자가 종합하여 개인적 이유(2개), 주거관리 이유(4개), 안전상 이유(6개), 환경적 이유(4개), 이념적 이유(1개)의 5개 하위범주로 묶어서 구성하였고 각 세부항목에 대하여 4점 만점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여 이주동기를 비교하였다<표 3>.

이주동기 5개 하위영역에서는 이념적 이유(3.24)가 주거관리 이유(2.29)나 환경적 이유(2.29), 안전상 이유(2.23) 보다 매우 크고, 개인적 이유(1.63)는 가장 낮았다. 이주동기 17개 세부 문항 중에서 상대적으로 평균값이 높은 것은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념을 좋아하기 때문에”(3.24)와 “건물의 위치가 좋아서”(3.00) 2항목이었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점을 얻은 것은 “배우자가 사망해서(1.46)”, “단지 내에 친지가 있어서”(1.57), “연금수혜자가 되어서”(1.73)의 3가지 항목이었다. 이러한 결과에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의 이주에는 이념적 이유가 가장 큰 동기가 되는 반면, 개인적 이유는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 이주하였다는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를 합하여 83%를 차지한다는 것은 코하우징의 기본이념인 공동체 생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특기할만한 사실이었다. 한편 건물의 위치가 좋아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사람들도 73% 정도를 차지한 것은 젊은이들에 비하여 활동성이 적은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은 편리한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시사하고 있다.

다음 평균점 2.5이상을 얻은 항목을 보면,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안전감을 위하여”(2.62), “이웃과 자주 만나며 살기 위하여”(2.53), “이웃과 상호협조하며 살기 위하여”(2.53) 이주하였다고 응답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념적 이유와 함께 노인용 코하우징 건물의 위치, 안전감, 이웃과의 공동체 생활도 주민들의 이주를 결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가장 중요한 이주동기 중의 하나가 이웃과의 사회적 접촉과 공동 활동을 원하며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라는 옌센(Jensen, 1994)의 논의와도 상통하는 점이다.

<표 3>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N(%)

범주	항목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거의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평균
개인적 이유 (평균 1.63)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72(11.0)	116(17.7)	30(4.6)	436(66.7)	654(100.0)	1.73
	배우자가 사망해서	68(10.4)	42(6.4)	10(1.5)	534(81.7)	654(100.0)	1.46
주거관리 이유 (평균 2.29)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176(26.9)	164(25.0)	31(4.7)	284(43.4)	655(100.0)	2.35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공유 공간 건물에서 살기 위하여	157(24.0)	120(18.3)	55(8.4)	323(49.3)	655(100.0)	2.17
	더 작은 주택에서 살기 위하여	8(1.2)	16(2.5)	41(6.3)	588(90.0)	653(100.0)	2.30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택에서 살기위하여	176(26.9)	161(24.6)	49(7.5)	269(41.1)	655(100.0)	2.37
안전상 이유 (평균 2.23)	안전감을 얻기 위하여	206(31.5)	191(29.2)	60(9.2)	198(30.2)	655(100.0)	2.62
	이웃과 자주 만나며 살기위하여	172(26.3)	223(34.0)	40(6.1)	220(33.6)	655(100.0)	2.53
	이웃과 공동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155(23.7)	213(32.5)	64(9.8)	223(34.0)	655(100.0)	2.46
	이웃과 상호협조하며 살기위하여	105(16.0)	181(27.6)	79(12.1)	290(44.3)	655(100.0)	2.53
	외롭지 않기 위하여	102(15.6)	128(19.5)	100(15.3)	325(49.6)	655(100.0)	2.01
	단지 내에 친지가 있어서	54(8.2)	79(12.1)	54(8.2)	468(71.5)	655(100.0)	1.57
환경적 이유 (평균 2.29)	건물의 위치가 좋아서	305(46.6)	175(26.7)	39(6.0)	136(20.8)	655(100.0)	3.00
	건물의 설계와 디자인이 좋아서	234(35.7)	191(29.2)	54(8.2)	176(26.9)	655(100.0)	2.05
	문화활동에 쉽게 접하기 위하여	79(12.1)	168(25.6)	110(16.8)	298(45.5)	655(100.0)	2.04
	자연에 쉽게 접하기 위하여	91(13.9)	152(23.2)	112(17.1)	300(45.8)	655(100.0)	2.05
이념적 이유 (평균 3.24)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	373(57.0)	170(26.0)	8(1.2)	103(15.7)	654(100.0)	3.24

3. 성별 이주동기 차이

현재 살고 있는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사 온 동기가 남성주민과 여성주민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별에 따라 이주동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주

동기 17개 항목 가운데 대부분은 남녀 주민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표 4>와 같이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전감을 얻기 위하여”, “외롭지 않기 위하여”의 4개 이주동기 항목에서 남녀주민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주민은 여성주민보다

<표 4> 성별 이주동기 차이

이주동기	성별	N	평균	SD	t	p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남	224	1.89	1.16	2.58	.010
	여	430	1.65	1.06		
배우자가 사망해서	남	224	1.22	.72	-5.02	.000
	여	430	1.58	1.10		
안전감을 얻기 위하여	남	224	2.44	1.17	-2.73	.007
	여	431	2.71	1.22		
외롭지 않기 위하여	남	224	1.86	1.07	-2.56	.011
	여	431	2.09	1.18		
주택과 정원 관리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남	224	2.47	1.24	1.75	.082
	여	431	2.29	1.30		

<표 5> 연령을 통제한 성별 이주동기 차이

성별과 연령		N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전감을 얻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남자	75세 미만	120	1.78	4.05 (.007)	ab	1.16	14.71 (.000)	a	2.54	4.70 (.003)	ab	1.96	3.19 (.023)	ab
남자	75세 이상	104	2.02		b	1.29		a	2.33		a	1.74		a
여자	75세 미만	234	1.72		ab	1.37		a	2.83		b	2.15		b
여자	75세 이상	197	1.56		a	1.82		b	2.57		ab	2.02		ab
계		655	1.73		1.46		2.62		2.01					

<표 6> 배우자 유무를 통제한 성별 이주동기 차이

성별과 배우자 유무		N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전감을 얻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남자	혼자	67	1.81	4.81 (.003)	ab	1.67	42.70 (.000)	b	2.31	2.90 (.034)	a	1.99	5.52 (.001)	ab
남자	배우자	157	1.92		b	1.03		a	2.50		ab	1.80		a
여자	혼자	273	1.54		a	1.88		b	2.73		b	2.22		b
여자	배우자	158	1.83		ab	1.05		a	2.66		ab	1.87		ab
계		655	1.73		1.46		2.62		2.01					

연금수혜자가 되어 이주하게 된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배우자 사망이나 안전감을 얻기 위하여,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이주하게 된 경우는 더 적었다. 그 밖에 주택과 정원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입주 동기는 $p < 0.1$ 수준에서 여성주민보다 남성주민이 더 많았다.

요약하면,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주동기는 남녀 구분 없이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남성주민에게는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여성주민에게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안전감, 외로움을 덜기 위하여 이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안전감을 얻거나 외로움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해 더욱 커진다고 가정해 보면 배우자 사망이 남성주민보다 여성주민의 노인용 코하우징 입주동기로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성주민의 유 배우자율이 70.1%인 반면, 여성주민의 유 배우자율은 36.7% 이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최정신, 2003b; Choi, 2004)에 의하면 노인의 거주형태를 결정하는 데에는 연령과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등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앞에서 나타난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가 연령, 배우자 유무, 건강과 같은 거주자 특성을 통제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세부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표 8).

1) 연령을 더해 본 성별 이주동기 차이

먼저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네 가지 이주동기에 연령을 더하여 분석해 본 결과(표 5),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는 연령과 성별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라는 이주 동기는 75세 이상 거주자에게서만 성별차이가 유의하여 남성주민이 여성주민보다 더 많은 반면, 75세 미만 주민 사이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해서”라는 이주 동기는 특히 75세 이상의 여성주민에게만 더 뚜렷한 것으로, 남성주민은 연령구분 없이 이들보다 낮았다. “안전감을 얻기 위해서”와 “외롭지 않기 위해서”라는 이주 동기는 75세 이상 남성주민보다 75세 미만 여성주민에게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입주 동기에 나타난 남성주민과 여성주민의 차이가 연령에 의해 더 뚜렷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배우자 유무를 더해 본 성별 이주동기 차이

다음은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를 배우자 유무를 더하여 세분하여 본 결과(표 6),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가 유의했던 네 가지 동기 모두 배우자 유무가 성별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금수혜자가 되어서”라는 이주 동기는 독신 여성주민보다 배우자 있는 남성주민에게서 더 많았으며, 같은 성별 내에서는 배

우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가 사망해서”라는 이주 동기는 예상했듯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남성주민이나 여성주민보다 혼자 사는 남성주민과 여성주민에게서 더 많았다. 앞에서 “배우자 사망”이라는 이주동기가 남성주민보다 여성주민에게 더 많았던 이유는 여성주민이 남성주민보다 혼자 사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안전감을 얻기 위하여”라는 입주 동기는 혼자 사는 남성주민보다 혼자 사는 여성주민에게 더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남성주민보다 혼자 사는 여성주민에게서 더 많았다. 이상에서 성별에 의한 입주동기의 차이는 배우자 유무에 의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3) 건강상태를 더해 본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

성별 이주동기 차이를 건강상태를 더하여 세분해 본 결과(표 7), 성별로 차이가 나타났던 이주동기의 차이는 대체로 성별과 건강상태가 상호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금수혜자가 되어서”라는 이주 동기는 “안전감을 얻기 위해서”라는 이주동기와 마찬가지로 성별과 건강상태를 결합한 집단간에 전체적으로 유의하여 건강한 남성주민과 건강하지 않은 여성주민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추후검증에서는 뚜렷하게 구별되어 드러나지는 않았다. “배우자가 사망해서”라는 이주동기는 건강한 남성주민보다 건강이 양호하지 않은 여성주민에게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이주한 경우는 건강한 남성주민보다 건강에 관계

없이 모든 여성주민에게 더 많았다. 이상에서 성별에 건강상태를 더해보면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는 주로 건강한 남성주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지역 변수를 더해 본 성별 이주동기 차이

마지막으로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를 지역에 따라 세분하여 알아보았다(표 8). 지역 변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용 코하우징 단지 설립 주체뿐만 아니라 이주동기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차이와 더불어 거주자 특성 차이가 복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지역 간 차이분석이 필요하겠다. 여기에서는 지역을 거주자 특성 중 하나로 한정하였다. “연금 수혜자가 되어서” 이주하게 된 경우는 스웨덴 여성주민보다 덴마크 남성주민에게 더 많았던 반면, “배우자의 사망”이 이주동기가 된 경우는 덴마크 남성주민보다 스웨덴 여성주민에게 더 많았다. “안전감을 얻기 위해서” 이주한 경우는 스웨덴 남성주민보다 덴마크 남성이나 여성주민이 더 많았다. 덴마크 주민에게는 전체적으로 안전감을 얻기 위한 이주동기에 성별 차이가 없었다. 외롭지 않기 위해 이주한 경우는 성별 차이 없이 스웨덴 주민보다 덴마크 주민에게 더 많았다.

이상과 같이 성별에 지역간 차이를 더한 결과를 보면,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는 남성주민 가운데 덴마크 남성에 의해, 또는 성별차이보다는 지역 차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7> 건강상태를 통제한 성별 이주동기 차이

성별과 건강상태		N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전감을 얻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남자	양호	62	1.77	2.67 (.047)		1.11	7.37 (.000)	a	2.37	2.52 (.057)		1.66	3.07 (.027)	a		
남자	양호안함	162	1.93			1.23		ab	2.47			1.93			1.93	ab
여자	양호	133	1.67			1.49		bc	2.70			2.03			2.03	b
여자	양호안함	298	1.64			1.62		c	2.71			2.12			2.12	b
계		655	1.73			1.46			2.62			2.01				

<표 8> 지역을 통제한 성별 이주동기 차이

성별과 지역		N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전감을 얻기 위해			외롭지 않기 위해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평균	F(p)	scheffe		
남자	스웨덴	161	1.84	3.09 (.027)	ab	1.25	7.17 (.000)	ab	2.33	5.51 (.001)	a	1.67	14.23 (.000)	a		
남자	덴마크	63	2.02		b	1.13		a	2.73		b	2.35		b	2.35	b
여자	스웨덴	307	1.61		a	1.61		c	2.64		ab	1.94		a	1.94	a
여자	덴마크	124	1.73		ab	1.50		bc	2.90		b	2.46		b	2.46	b
계		655	1.73			1.46			2.62			2.01				

<표 9> 성별 생활만족도 차이

꿈같은 생활	전혀 아니다 N(%)	별로 아니다 N(%)	그렇다 N(%)	계 N(%)	$\chi^2=6.827$ (.033)
남 자	15(7.0)	80(37.4)	119(55.6)	214(34.7)	
여 자	14(3.5)	128(31.8)	260(64.7)	402(65.3)	
합 계	29(4.7)	208(33.8)	379(61.5)	616(100)	

<표 10>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

이주동기	r(p)	성별을 통제한 r(p)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027	.036
배우자가 사망해서	.113(.005)	.096(.017)
주택과 정원관리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066	.072(.075)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공유 건물에서 살기 위하여	.155(.000)	.160(.000)
더 작은 주택에 살기 위하여	.064	.067(.099)
노인과 장애인에게 적합한 주택에 살기 위하여	.185(.000)	.182(.000)
안전감을 얻기 위하여	.242(.000)	.239(.000)
이웃과 자주 만나며 살기 위하여	.233(.000)	.234(.000)
이웃과 공동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248(.000)	.251(.000)
이웃과 상호협조하며 살기 위하여	.203(.000)	.207(.000)
외롭지 않기 위하여	.201(.000)	.197(.000)
단지 내에 친지가 있어서	.172(.000)	.171(.000)
건물의 위치가 좋아서	.185(.000)	.193(.000)
건물의 설계와 디자인이 좋아서	.217(.000)	.225(.000)
문화활동에 쉽게 접하기 위하여	.126(.002)	.128(.001)
자연에 쉽게 접하기 위하여	.085(.034)	.092(.023)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념이 좋아서	.317(.000)	.317(.000)

<표 11> 성별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 상관관계

	주택과 정원관리에서 해방	규모가 작은 집에서 살기 위하여
남 자	r=0.055	r=0.022
여 자	r=0.083(p=.096)	r=0.086(p=.085)

4.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생활만족도

1) 성별 생활만족도 차이

생활만족도는 “이곳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꿈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조사대상자 중 61.5%는 꿈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33.8%가 별로 아니다, 4.7%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그런 가운데 남성주민이 여성주민보다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꿈같은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좀 적은 반면, 그렇지 않다고 한 경우는 더 많았다.

2) 성별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 상관관계 차이

성별로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이를 성별변수를 통제한 부분상관관계와 비교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주동기 17개 항목 가운데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주택과 정원관리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더 작은 주택에 살기 위하여”의 3항목을 제외한 14개 항목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들 항목의 이주동기가 강할수록 꿈같은 생활을 하는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을 통제하여도 14개 이주동기 항목은 여전히 생활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어 주민의 성별에 상관없이 이들 항목의 이주동기가 높으면 생활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이주동기 3개 항목 가운데 “주택과 정원관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와 “더 작은 주택에 살기 위하여”는 성별변수를 통제한 후 생활만족도와 유의도 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대상자를 남자와 여자로 나눠 각각 두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표 11), “주택과 정원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와 “규모가 작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이주한 경우, 남성주민들은 두 이주동기 정도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은 반면, 여성주민들은 두 이주동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게 컸다. 이와 같은 성별 내 상관관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두 이주동기 요소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가 의미 있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IV. 결 론

노인을 위해 계획된 노인용 코하우징은 시설이 아닌 일

반주택으로 노인들이 가까이 모여 살면서 이웃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하고 상호협조하며 외롭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함으로써 노화에 따른 변화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일반적으로 노인이 경험하는 고독이나 고립, 무위를 벗어나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노인주거 대안으로 알려져 있어 곧 고령사회를 맞게 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용 코하우징을 처음 시작하고 오랜 동안 시행해 온 덴마크와 스웨덴의 노인용 코하우징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의 성별에 따라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스칸디나비아 덴마크와 스웨덴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은 대체로 70대 전후로 건강하며, 독신과 부부노인이 거의 반반이고, 은퇴 전 직업이 다양하며, 현 노인용 코하우징에 수년간 살고 있다. 이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동기는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또는 배우자 사망 같은 개인적인 이유보다는 노인용 코하우징의 이념이나 위치, 이웃과 상호협조하며 공동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더 크다. 주민들이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동기는 소수 항목을 제외하고는 남녀 구분 없이 비슷하여 성별에 따라 이주동기에 차이가 거의 없다. 다만 남성주민이 여성주민보다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가 더 많은 반면, 배우자 사망이나 안전감, 외로움이 동기가 된 경우는 다소 적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이주동기의 차이는 거주자의 성별 이외에 연령이나 배우자 유무, 건강상태, 지역 변수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연금수혜자가 되어서 이주한 성별 차이는 거주자 특성을 통제했을 때, 연령에서는 75세 이상에서만 유의하며, 배우자 유무나 성별과 상호작용하여 배우자가 있는 남성주민과 독신의 여성주민, 덴마크 남성주민과 스웨덴 여성주민 사이에서 유의하다. 배우자가 사망해서 이주한 동기의 성별 차이는 모든 남성주민과 75세 이상의 여성주민 사이에서 유의하며, 남녀 구분 없이 독신 거주자와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 사이에서, 건강이 양호한 남성주민과 건강하지 않은 여성주민 사이에서, 덴마크 남성주민과 스웨덴 여성주민 사이에서 유의하다. 안전감을 느끼기 위해서 이주한 성별 차이는 75세 이상 남성주민과 75세 미만 여성주민 사이에, 혼자 사는 경우에만 남성과 여성주민 사이에, 스웨덴 남성주민과 덴마크 남녀 주민 사이에 유의하다. 외롭지 않기 위해서 이주한 성별 차이는 연령이나 배우자 유무와 상호작용하여 75세 이상 남성주민이나 75세 미만 여성주민 그리고 배우자 있는 남성주민과 독신 여성주민 사이에서 유의하며, 건강한 남성주민과 모든 여성주민 사이에서, 성별 구분 없이 덴마크 주민과

스웨덴 주민 사이에서 유의하다.

통계변수로 사용한 거주자 특성들 가운데에서는 성별에 따라 배우자 유무 변수만 차이가 컸으며 연령, 건강상태, 지역변수는 남녀주민 사이에 비슷했다. 지역을 더하여 나타난 성별 이주동기의 차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만 단순히 설명하였으나 지역변수는 주민의 연령 차이와 함께 노인용 코하우징 개발과 입주자 선정과정, 두 지역의 인구특성과 연금제도 및 사회 문화적 차이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이들을 감안하여 앞으로 추후연구에서 지역 간 차이를 보다 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노인용 코하우징에서 꿈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로 알아본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매우 높았으며, 남성주민의 생활만족도가 여성주민보다 약간 낮았다. 노인용 코하우징에서의 생활만족도는 대체로 성별에 차이 없이 이주동기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주동기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 다만 이주동기 가운데 “주택과 정원 관리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와 “더 작은 주택에 살기 위하여”는 “연금수혜자가 되어서”와 함께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는데 성별을 통제 한 후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남성주민에게는 이 두 가지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여성주민에게는 이 두 가지 이주동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도 따라서 높았다. 남성주민은 여성주민보다 주택과 정원관리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한 경우는 더 많았으나 이 이주동기와 생활만족도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가 스웨덴과 덴마크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 전체를 모집단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자료라는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과거의 시점에 일어난 이주 행동과 관련된 계기 또는 원인 등을 돌이켜 회상한 변수이며 연령, 건강상태, 배우자 유무 같은 거주자 특성은 이주 시점이 아닌 조사 시점의 특성이므로 이들 간에 대략적인 관계를 알아볼 수는 있겠으나 분석에서 나타난 통계 값이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들이 대체로 노인용 코하우징의 특징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찾아 현 노인용 코하우징으로 이주하였으며 아울러 현재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바와 같은 뚜렷한 이주동기와 높은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이 남녀 주민 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대상국가와 우리와의 사회문화적인 거시환경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곧 고령사회를 맞아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주거대안마련이 시급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접수 일 : 2005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05년 12월 05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1월 17일

【참 고 문 헌】

- 변광수(2005). 스웨덴, 스웨덴 사람들. 문예림.
- 이연숙·김미희·손승광·오찬욱 역(1999). 스웨덴의 주택연구와 디자인. 태림문화사.
- 주거학 연구회(2000). 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 최정신(2003a). 덴마크 자치관리형 노인용 코하우징의 디자인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1(4), 1-19.
- 최정신(2003b).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주민의 이주동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2), 129-138.
- 최정신(2003c). 제3의 연령대를 위한 고령화 사회에의 도전: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 *건축*, 47(6), 55-63.
- 최정신 & Paulsson, J.(2005). 스칸디나비아 노인용 코하우징의 계획과 적용. 아산사회복지재단 저술지원 연구보고서. 미간행.
- 홍형욱·이경희·김대년·최정신·조재순·권오정(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지식마당.
- Ambrose, I.(1993). *Etablering af seniorbofællesskaber, Erfaringer fra tre projekter i Odense*. Statens Byggeforskningsinstitut, København.
- Choi, J. S. & Paulsson, J.(2003). A study of life and physical environment of senior cohousing in Scandinavian Countries, with significance for future quality of life in European countries and East Asian countries. The Stockholm Symposium on Nordic Studies, Association of Nordic Studies, Sweden, Japan and Korea, Stockholm Sweden.
- Choi, J. S.(2004). Evaluation of community planning and life of senior cohousing projects in Northern European countries. *European Planning Studies*, 12(8), 1189-1216.
-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1984). *SBI Report 187: Cohousing communities, collection of examples*, København.
- Swedish Institute(2004). Fact sheets on Sweden, January 2004. 2005.
- Foreningen Bofællesskaber for Ældre(1997). *Registerant over 42 danske Seniorbofællesskaber*, København.

- Jensen, S. P.(1994). Summary and conclusions of the conference on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BiC, Copenhagen, Denmark, 8-13.
- Moulvad, U.(1994). Introduction, co-housing for senior citizens in Europe, BiC(Housing and Well-being in Focus), Copenhagen, Denmark: 6-7.
- Hansen, E. B., Dahle, A., Gottschalk, G. & Jensen, S. P.(2000). *Ældre i bofællesskab* SBI.
- SBI(1987). Cohousing communities, collection of examples,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SBI-report 187.
- Paulsson, J. & Choi, J. S.(2004). Senior cohousing in Denmark and Sweden. *스칸디나비아연구*, 5(1), 369-396.
- Paulsson, J. & Sundberg, S.(2001). Seniorboende i Sverige. *Idéer, erfarenheter och framtids Uppdrag för Socialdepartementets äldreberedning, Senior 2005.* Chalmers. Göteborg.
- Pedersen, M.(1999). *Seniorbofællesskaber...hvorfør og hvordan: Bolitriksel i Centrum, København.*
- Pedersen, M.(2000). *Nybyggere i den tredje alder, -om bofællesskaber: Bolitriksel i Centrum, København.*
- Vestbro, D. U.(1998). The study of collective housing: A Swedish perspective. *In The Meaning and Use of Housing*, edited by Ernesto G. Arias, Avebury, USA: 405-424.
- Vestbro, D. U.(2000). From collective housing to cohousing- A summary of research.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17(2), 164-177.
- Woodward, A.(1987). Public housing communities: Swedish response to post-material demands. *In Housing and Neighborhoods*, edited by W. van Vliet et al., 215-238.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Woodward, A.(1989). Communal housing in Sweden. *In New Households New Housing*, edited by Franck & Ahrentzen, Van Nostrand Reinhold.
- Woodward, A., Vesterbro, U. D. & Grossman(1989). Den nya generationen kollektivhus. Experiment med social integration, förvaltning och rumsutformning. Byggnadsnämnden T16: 1989. Stockholm.